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임원수련회 갖고 결속 다져

대련서 친목 다지고, 여순 찾아 선열들 애국정신 기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이기용 목사) 임원수련회가 지난 7월 7~1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대련 및 여순 일대에서 진행됐다.

본 교단을 비롯한 기성과 나성 3개 교단 임원진들을 비롯한 관계자 3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씬을 통한 총전과 정기총회 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연 17기 출범 후 처음 갖는 이번 수련회는 중국 대련과 여순 일대의 명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한편, 한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현장을 방문해 송고한 애국정신도 고취했다.

첫날인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참가자들은 대련에 도착해 '동방수

성'과 '성해광장 야경 및 레이저쇼' 등을 관람하며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여순 지역으로 이동해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았던 '관동법원'과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항일 유적지인 '여순감옥'을 차례로 방문했다. 역사적인 아픔이 서린 현장에서 임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저녁에는 숙소에서 예배와 회의 시간을 갖고 한성연의 발전과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며 영성을 다졌다.

셋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대련 도시계획전시관, 연화산 해안전망대, 대련조선족 기독교교회, 러시아거리, 대련파블리

온 쇼핑몰 등 현지의 주요 문화·역사 명소를 둘러보며 다채로운 일정을 진행한 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안중근 의사의 숭결이 느껴지는 여순감옥 등 항일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며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여정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성연은 이번 임원수련회 기간 동안 다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지역과 한성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성결신문 제공]

교단총무·103회기 선관위원회 상대 행정재판 최종 기각

“국가 행정소송법 상 사인에 해당 피고의 자격요건 미비”



지난 6월 15일 진행된 첫 재판 모습

인천지방법 모 목사가 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현 교단총무를 상대로 고소한 행정재판이 최종 기각 판결됐다. 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록 목사)는 지난 7월 13일 총회본부에서 이와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방법 모 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 임원선거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각 처리된 판결문에 따르면 행

정재판위원회는 국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피고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은 그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각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103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 실체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발한 이들은 피고의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동정



총회장 이종만 목사

- 7. 5 맥추감사주일행사
- 7~10 한성연임원수련회
- 10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하계수련회
- 12 마포제일교회 기공식
- 14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 20 아프리카 선교사 미팅
- 21 총회 임원회의
- 25~26 생명수생교회 어린이성경학교
- 28 웨슬리언협회미팅
- 30 웨슬리언교단장 모임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총회 사무국장에 김승현 목사, 교육국장 류형창 목사 임명



총회본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총회본부 사무국장에 김승현 목사(사진 좌)를



공개 채용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신임 사무국장 김승현 목사는 1986년 성결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성결교신대원에서 수학했으며, 단국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2000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해병대2사단 등에서 근무하다 2012년 11월 해군소령으로 예편했으며 총회본부 교육국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국장도 새롭게 임명됐다. 교육국장으로서 선임된 류형창 목사(드림교회·사진 우)는 서울남지방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26년 목회자 부부 하계수련회 오는 8월 24일 개최

‘예수 안에 씬, 성령으로 충만!’ 주제로 전남 여수 일원서

2026 목회자 부부 하계수련회가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시 소재 베네치아 호텔에서 개최된다. ‘예수 안에 씬,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하계수련회는 목회자 및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간의 일정은 대부분 가족과 목회자들간의 화합과 씬을 위한 개별 일정으로 진행되며 저녁시간에는 찬양 콘서트와 집회, 기도회로 진행된다. 둘째날 저녁 집회 강사로는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가 초빙되었으며, 첫째날 저녁 찬양집회는 용기장이찬양단이 초청되어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목사와 사모들로 구성된 찬양단의 찬양인도가 매집회마다 진행되는



다. 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바쁘고 분주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씬을 얻는 귀한 시간

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1면에 이어

△성결신학원 이사 추천의 건도 다뤄져 최상현 목사(행복한 송영만 목사(빛과소금)를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키로 했으며 현 성결대 총장 정희석 장로의 경우 출석하는 남부교회에 또 다른 이사가 재직 중이므로 사임 후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결의하였다.

△유지재단 이사 추천의 건도 다뤄졌다. 최윤영 목사(거룩한씨동) 장영만 장로(강서)와 강사로는 위성섭 목사(부평남부)를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은급재단 이사 추천의 건도 다뤄져

윤성철(개동) 김성은 목사(시흥중앙) 정태관 장로(규암)를 각각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성결신문사 감사 추천의 건이 상정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전임자의 뒤를 이어 유 신 목사(신암)를 추천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하였다.

△행정구역조정건의 건이 다뤄져 오세아니아지방회와 대양주지방회를 통합하는 안건이 논의되었다. 현 오세아니아지방회는 2개 교회만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지는 안건으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해 다뤄지도록 하였다.

△총회 유지비 조정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이날 임원들은 시간이 걸리

더라도 단발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지교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지비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부총회장과 부서지, 회계, 전 총회장 중 1인을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다.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가 설립된다. 부총회장인 이상문 목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사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 디지털 전환 등의 사업을 이어갈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키 위해 목회전선부 산하에 두고 위원들은 공개 모집키로 하였다.

제57회 목사고시 공고

| 제105회 총회 57회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사고시 일정, 원서접수 안내

가. 목사고시 일시 : 2026. 11. 12.(목) ~ 13.(금)

나. 장 소 : 성결대학교 재림관 9층 대회의실

다. 원서접수 기간 : 2026. 7. 6.(월) ~ 8. 7.(금)

2. 목사고시 설명회 일정

가. 설명회 일시 : 2026. 9. 3.(목)~4.(금)

나. 장 소 : 성결대학교 재림관 9층 대회의실

3. 원서제출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총회본부 사무국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8월 7일(금) 17:00까지)

※ 원서 인터넷 제출방법 :

- ① 원서 다운로드 : 총회본부 인터넷접속 → 로그인 → 온라인행정 「온라인원서접수」 클릭 → 목사고시원서 다운로드
- ② 원서 작성 : 저장한 문서(원서원서)를 불러낸 후 → 컴퓨터상에서 원서작성 → 원서 및 수험표에 사진입력 → 최종 저장

③ 원서 제출 : 로그인 → 온라인행정 → 「온라인 원서접수」 클릭 → 제목, 비밀번호, 내용 작성 후 「첨파파일」을 눌러 저장했던 원서 올리기

나. 신청서류 :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3×4)2매, 전도사청빙승인증명서 1부(해당 지방회에서 발급 받으신 후 총회로 우편송부, 제39회~56회 응시자는 제외)

다. 응 시 료 : 과목 당 35,000원×신청과목 수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01-0390-296 (예금주 : 예성총회)

4. 응시자격:

성결대학교, 총회성결교신학교 졸업과 성결신대학원, 성결교신대원 수료 또는 졸업 후 본 교단 각 지방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자(단, 군종목사 후보생은 전도사 청빙승인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각 과목 70점 이상은 합격으로 한다.

나. 군목 및 선교사 지망생도 목사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다. 해외 지역 응시자는 각 과목의 레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과목 담당교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라. 시험 고사장에는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마. 목사고시 응시자는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연도의 목사고시 응시를 할 수 없다.

바. 시험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총회본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1600-0695 내선2 070-7132-0011)

사. 복장은 반드시 정장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과목수를 1회당 7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6. 고시과목 안내(총 11과목)

△구약신학: 석진성 목사 △교회개척과성장: 이충동 목사

△선교와전도: 엄복용 목사 △예배학: 배상도 목사 △신약신학: 김순홍 목사

△현장: 전영호 목사 △조직신학: 김영택 목사 △설교학: 김원태 목사

△사목상담: 김정호 목사 △교회사: 강명국 목사 △목사학: 고신원 목사

※ 과목명 변경 안내 : 교육목회 → 신약신학, 성서신학 → 구약신학(교육목회, 성서신학 합격자들은 신약신학, 구약신학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 목사고시 시간표 및 교육설명회 시간표, 목사 고시에제, 연구과제 등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목사고시 교육 및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고 총회홈페이지(공지사항)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종만 목사 / 목사고시위원장 강명국 목사 / 서기 엄복용 목사